

효봉·성철 스님 등, 칼잠에 죽 먹으며 ‘정신’ 배워

특강-한암스님의 종단내 위상

김광식 교수(부천대)

조계종에서 종정을 내치레나 지낸 한암 스님. 하지만 스님은 '동구불출(洞口不出)'이라 하여 51세에 월정사에 들어간 후 열반할 때까지 2년간 산문밖을 나오지 않았다. 3월 24일 '한암 대중사 수행학림' 두 번째 주제인 '조계종단에서의 한암대중사의 위상'에 대해 강의한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한암 스님이 불출산(不出山)으로 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간경·선·염불·의식·가람수호등 승가오칙(僧家五則)의 가르침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광식 교수의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월 24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한암대중사 수행학림에서 김광식 교수는 "한암 스님은 근현대의 소용돌이에서 한국불교의 중심을 잡고 자존심을 지킨 큰스님"이라고 말했다.

에게 앞서 '왜 우리는 한암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회두를 여러분께 드러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회두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듣고 '한암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스님께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27년 '동구불출'...종정 내차례 역임

오늘 저는 조계종단에서 한암 스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큰스님'을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은사에 은사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큰스님이라고 하면 법, 도력, 인품, 인격, 참다운, 진짜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고, 영향력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고승, 거목, 큰 인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큰스님'은 큰 족적을 남기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으며, 교화를 많이 하신 분을 통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입적 후에도 중생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고, 다시보고 싶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큰스님'을 얘기 할 때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저는 한암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의 첫째 조건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쪽에 관심을 두면 꼭 문제와 모순, 부패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한번도 명예나 욕심을 낸적이 없었습니다. 조계종단의 가장 큰 어르신은 종정(교정)입니다. 종정 스님은 종단의 대표이며 법을 상징합니다. 현재까지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하신 큰스님중 해인사 성철 스님, 송광사 효봉 스님, 범어사 통산 스님, 도선사 청담 스님, 통도사 월하 스님, 백양사 서옹 스님, 70년대 종정을 두 번이나 역임한 고암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스님들이 한암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이밖에도 석주, 고승, 범종 스님들 아주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상원사 선원은 최고의 수행자였습니

다. 한암 스님의 정신을 배우려고 이곳으로 남자들이 모여들다보니 칼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식량이 부족하여 아침에는 항상 죽으로 연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한암 스님이 주석하던 상원사는 일제 시대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암 스님은 조계종단에서 4차례나 종정을 역임 하셨습니다.

상원사에 남자들 구름처럼 몰려

그 첫 번째가 1929년 조선불교 선교 양종대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1911년에 사찰령을 만들어 불교를 장악하고 통제 및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종단이 부재한 상태였고 다만 일제가 사찰령에 의해 전국 사찰을 30분으로 분할시켜 놓았습니다. 이후 기미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불교계에도 사찰령 철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7000여명의

스님중 2284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종단의 구성을 막던 일제는 기세가 눌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합니다. 드디어 1929년 1월 3-5일 107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승려대회가 열려 종헌제정, 교무원, 종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으로 불교 자주회와 역사상을 계승한 종단이 건설된 것입니다. 승려대회에서 교정(7인)을 선출했는데 53세의 방함암 스님을 비롯 김환운, 서해담, 김경운, 박한영, 이윤허, 김동선 스님입니다. 하지만 첫 종단은 1년 반정도 있다가 일제의 공작으로 좌절됩니다. 이후 1935에 창종한 조선불교 선종이 60명의 수좌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수좌대회를 열고 신해월, 송만공, 방한암 스님등 3인을 종정으로 추대합니다. 1941에는 현재의 종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불교 조계종이 창종합니다.

'승가오칙' 가르침으로 전통 계승

조선불교 선종이 친일, 의타성 때문에 종헌체제가 와해됐습니다. 그래서서 안되겠다고 해서 1937년 2월에 총본산 건설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는 31본산의 전체 승려가 동의하는 총본산(중앙)을 세우고, 인사 및 재정권을 부여하며 한국불교 전체 운영의 틀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태고사를 각황사로 이전했습니다. 각황사를 태고사로 명칭변경 한 것은 태고 보우국사 계승의식이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보조국사 태고보우국사 도의선사등 종조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당시 스님들은 태고보우국사의 후예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적이며 자생적 선종인 조계종이 창종하면서 본사주지 30명이 모여 종정선거를 한 결과 한암 스님이 19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암 스님등 주지 대표들이 상원사를 찾아와 한암 스님에게 종정으로 추대할 뜻을 피력합니다. 그러자 한암 스님은 찾아온 스님들에게 "세상사를 일체 망각하고 떠도는 구름과 흐르는 물을 벗삼아 살아가는 일개 운수남자인 나에게 그러한 중요한 책임은 원만부당하고 내 그림자를 오대산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내

신념입니다. 동구불출(洞口不出), 불출산(不出山)해도 불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승낙하겠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정을 역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948년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역임한 것입니다. 70대였던 한암 스님은 초대 박한영 스님이 입적하자 1948년 6월 30일 교정에 추대됩니다. 스님은 종단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공의를 모으라고 말하며 승가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을 보내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수행학림에 참가한 불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한암 스님의 가르침인 승가오칙(僧家五則)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간경입니다. 금강경 화엄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님은 선수행자도 경전은 기본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입니다. 참선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염불입니다. 불교를 대중화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포교하기 위해서는 염불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스님은 기본적으로 의식을 알아야 한다고 선방에서도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다섯번째는 가람수호입니다. 절을 잘 지키면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중시했습니다. 스님은 항상 스님들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월정사/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근현대 출·재가자들이 본 한암 스님

- 대은 스님(조선불교중앙교무원 초대 중앙포교사): 한암 스님은 서울 봉은사 조실을 하다가 갑자기 상원사로 가서서 동구불출, 장좌불와, 오후불식하며, 회두하고 기도하고 제정납자수좌들을 지도만 하시고 있습니다. 스님은 평생 공부에만 힘써와 제 정 해 삼학이 다 갖췄습니다. 그러고도 천하에 스님의 도가 알려져 운수남자가 저자처럼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스님을 보면 빛이 나서 만나기만 하면 저절로 고

서릿발처럼 엄하면서도 자비롭고 진실 ... 계행 철저

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이 스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계의 영광입니다. ● 이능화(조선불교통사)를 쓴 대 학자: 최근 (1941년) 선방을 냉철하게 관찰해보니 대부분 스님들이 견성을 했다고 얘기할 뿐 지계와 고행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암 선사는 범행이 바르고, 선정과 지

혜가 구축하니 스님의 범호만 들어도 누구나 자숙 자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암 스님은 산을 나오지 않아도 불교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지암 스님(前 조계종 종무총장): 한암 스님은 생불입니다. 스님을 잘 모시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 태원 스님(금강산 유림사): 더도 말고 덜도 말

고 중노릇은 한암 스님 만큼만 하여라. ● 범종 스님(前 조계종 전체대회상): 한암 스님은 서릿발처럼 엄하면서도 자비롭고 진실하셨습니다. 스님은 계행이 철저하고, 선지에 밝고, 한문 실력이 있고, 글씨도 잘 쓰셨습니다. ● 도원 스님(前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스님의 법은 항상 7부만 담았습니다. 간혹 8부를 담으면 '아! 이놈아 늙어서 먹고 똥싸라고 이렇게 많이 담느냐'며 여단을 치셨습니다. ● 사토오(일본 조동종): 한암 스님은 세계에서 들도 없는 인물입니다

아빠타 코스 나뉘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연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사뵈다 센터 전환주는 빛은 내내 자음을 보드르합니다.
 이wert 마스터 김희균
 ● 전환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54-1 전화 010-6230-2113 유 021356-2736
 http://www.aratcenter.co.kr E-mail heeyun@arat21.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 하시는 스님께서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홍숙)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02)456-8831
 강원도: 019-396-1110
 충청도: 011-8674-2357
 경상도: 010-7638-1117
 전라도: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믿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원장 이영숙(법명: 無生子)
 사무실: 0212677-5442
 소연구원: 0321345-5411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

화엄산림-제2강(7~14품)

각성 스님(前 통도사 강주)

3월 25일 열린 화엄산림 두번째 법사인 각성 스님(前 통도사 강주)은 <화엄경> 7~14품 강에서 "화엄경에서는 마음법을 깨닫는 방법으로 네가지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부동삼매', 마음을 잘쓰는 '용심', '대서원', '대행' 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각성 스님의 화엄경 강설내용을 정리한다.

무명무상절일체(無名無相絶一切)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이름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어졌으니
깨친 지혜로 알 일일뿐 다른 경계로 알 수 없네.

원래 여래에게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이끌어주기 위한 이름이 필요하여 불명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미타부처님 약사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 비로자나부처님 노사나부처님등 여러 가지 명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명호

“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그 자리는 비고 고요하며
밝은 힘을 가졌기에
본체 깨달으면 광명

”

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래명호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진리는 명호가 핵심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화엄경>의 전부를 다 보아야 비로소 알수가 있어요.

오대산이 이렇게 크고 좋지만 한쪽만 보고 신의 전부를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들렌이 하나 나무 한그루를 보고 오대산이라고 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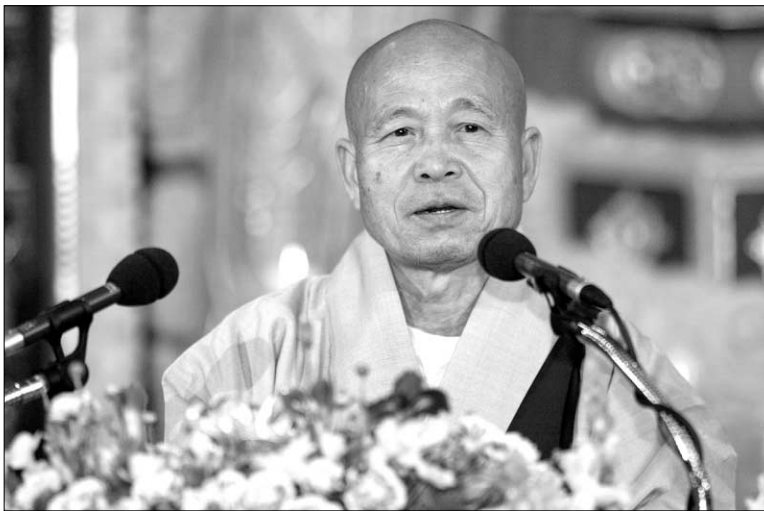
옛날에 경봉 스님이 <화엄경>을 잘 알면 십지보살(十地菩薩, 수행의 10단계중 거의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화엄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을 저에게 말하라고 하면 한마음을 밝혀서 우주만법을 통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우주 법계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식에서도 <화엄경>을 소의경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근본이 되었기에 심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근본이라고

마음법 깨닫는 네가지 수행법

부동삼매 · 용심 · 대서원 · 대행



월정사 화엄산림 두번째 법사인 각성 스님은 "사람 몸 밖에도 부처님 법 안나기도 어려운 만큼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는 모든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라는거요. 마음에서 허공계나 세계, 천지만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지요. 사람들은 마음이 육체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육체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으면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대방광의 원리를 깨달아야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범부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래명호품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설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덟번째 '사상제품'은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를 말하고, 아홉번째 '광명각품'은 부처님이 광명으로 깨우쳐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원래가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 자리는 비고 고요하면서도 밝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그 원리, 본체를 깨달으면 광명이 난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세계는 일로 말하기 전에 광명으로 마음의 복잡한 고뇌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열번째 '보살문명품'은 보살들이 서로 질문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열한번째 '정행품'은 청정한 수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행품'은 중생들이 어떻게 정화를 해야 하는

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는 생각을 초월해야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범부 중생은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있어서 1할나니 초를 120등분 한것에도 900번의 마음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잡념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연별이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연별하는 것을 사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근성에 맞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참선 관법 요가 등이 사실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행품에서는 평상시에 좋은 생각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청정한 수행은 매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몸에 화장하고 하는 것보다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정행품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하고 목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두번째는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화엄경에 대해 얘기한 것을 말합니다. 열세번째 '승수미산정품'에서는 부처님이 도리 천궁에 가서서 수미삼공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열네번째 '수미정상계전품'은 수미정상에서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하는 찬송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엄경> 7~14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초보자에게 해당되는 법문인 심진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심진법은 부처님의 도를 읽는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불과 몇 십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좋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은 살아있는 동안 귀중한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보잘것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사람 몸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수천만겁을 지나면서도 사람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지요.

<열반경>을 보면 부처님의 설법내용이 있습니다. 손톱위에 흙 한점을 올려 놓고서도 제자들에게 물었어. "이 손톱 위의 흙이 많으냐? 아니면 땅위의 흙이 많으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길 "손톱 위에 흙은 보잘 것 없고 땅위에 있는 흙은 지극히 큼니다"고 답합니다.

“

'화엄경' 핵심은 한마음을 밝혀
우주만법 통괄하는 것
놓고 놓고 또 놓아버리고
큰 서원으로 보현행을

”

그러자 부처님은 "사람되는 것도 손톱위에 올려 놓는 흙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고서도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가치 즉 만물의 영장이 된 보람을 마음의 깨달음 얻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엄의 진리인 여래의 대열반을 터득하기 위한 대의를 네가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삼매(不動三昧)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삼매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지는 '나이 40에 부동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70세가 되어도 부동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여래의 최고의 깨달음을 알려면 부동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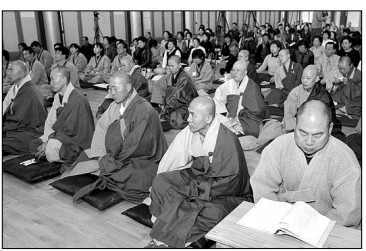
법화경에도 보면 몸과 마음이 부동하기를 수미산 같이 해야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파동치

니 이 생각은 없고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기에 '망념'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에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없으니까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꿈처럼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문에서는 '방하작(放下着, 놓아버려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경전에 보면 바라문교 수행자였던 흑치법지가 부처님을 진경하려고 두송이 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흑치법지가 마음의 고뇌를 놓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높은 법좌에서 설법을 하던중이었습니다.

흑치법지를 보자마자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는 부처님은 '놓아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흑치법지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부처님이 '놓아버려라'라고 얘기하자 이번에는 오른쪽 손의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다시 '놓아버려라'고 하니, 내려 놓을 것이 없는 흑치법지는 당황해 합니다.



월정사 화엄산림에 참가한 200여 사부대중.

부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꽃을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는 육근(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사유기관과 밖으로 육신(색·음·향·촉)·미(味)·촉(觸)·법(法)을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흑치법지가 설명을 듣더니 곧바로 도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의 큰절을 하고 부처님 은혜가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놓아버리면 부동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엄의 진리를 알려면 지푸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선용지심(善用之心)'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욕심도 심술도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괴로움에서 허락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풀어 줄 수 있는가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보살들같이 용심을 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는 가정이고, 모든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자세에서 용심을 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살이 물었습니다. 여러 법 중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이에 문수보살의 답이 '선용지심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이 없으면 수행도 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는 큰행을 하라는 '대행'입니다. 육도만행 즉 보현의 행을 닦으라는 말입니다. 100가지, 만가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가지를 뒤으면 그 누구나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월정사/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9중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한
약 왕 사
名品紅蓼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약왕사 주지 정명 협장

■ 제조원 : 약왕사 (왕승농산)

전화 (054)371-6665
팩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연수생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계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제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중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계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중로구 중로 3가 20(영흥 B/D 4층)
<서하철 1,3,5호선 중로 3가역 2번출구>

(주)천성건설

◆ 공사 개요 ◆

-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 석재, 부품 일체
- ◆ 석, 조각, 석물 일체
- ◆ 석, 불상, 좌상, 미륵
- ◆ 석, 탐, 마애불상조각
- ◆ 건설부문
- ◆ 석굴, 남골당 공사
- ◆ 석굴, 법당 조성
-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 석공사 일체
- ◆ 석굴, 지정석,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용역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탐방공사 28개 조성

◆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이재갑

(株)天星建設

뛰어난 식품이자 의약이며 조미료
함 초

함초란?
함초의 우리말로는 통통하고 마디마디 튀어 나온 풀이라 하여 '통통마디'라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옛 의학서인 '신농초본경'에는 맛이 몹시 짜다고 해서 함초(鹹草), 염초(鹽草), 회귀하고 신령스러운 풀이라는 뜻으로 신초(神草)라고 적혀 있다.

함초는 국어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풀이다. 그러나 이름만 생소할 뿐이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든 바닷물을 한껏 빨아 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 시키고 각종 미세달 성분은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 ▶ 혈액순환이 좋아 저혈압, 고혈압과 증혈작용 효과
- ▶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
- ▶ 피부를 맑게하고 부인병에 효과
- ▶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치료에 효과
- ▶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 ▶ 감작성 기능에 효과

농협계좌 753083-52-158936 (예금주:이철우)
문의처 : 백련스님 054)638-4796 / 010-4591-4796